

# “서울 교육위한 기도회?”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헌법소원심판 청구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김주원 변호사, 이하 종자연)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정택 교육감은 8월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해 종교편향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종자연은 11월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택 교육감은 근무시간을 이용, 사실상 특정 종교 이익집단집회 성격이었던 기도회에 참석했다. 특히 공문서 발송용인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 기독교연맹 소속 88개 학교에 참여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공직자의 종교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또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강요하는 등 교육계 내 종교편향 사례가 증가하는 요즘, 교육감의 공식적 종교행위는 반교육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헌법소원을 제출한 박근열 변호사는 “근무시간 중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은 정보보안 원칙에 위반



박근열 변호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된다”며 “교육감의 행동은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제1항),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등에 대한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강조했다. 종자연은 “학부모 김선미씨 등의 명의로 헌법소원서를 접수했으며, 사건번호는 ‘2008 헌마 661’이다.

종자연 손옥균 기획팀장은 “국민

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탄핵, 주민소환 등이 가능하지만, 서울시교육감은 아직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징계조항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헌법소원 결과 위헌결정이 확정되면 교육감의 징계조항을 만드는 입법소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yeam@buddhapia.com

# 조계종 중앙종회 후반기 의장에 보선스님 선출

## 6일 179회 정기중앙종회 개회...부의장에 지준·성직 스님

조계종 제14대 중앙종회 후반기 의장에 보선 스님(대흥사 회주, 3선 중앙종회의원)이 선출됐다.

중앙종회는 11월 6일 오전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79회 정기 중앙종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단독 입후보한 보선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보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아무 것도 갖출 게 없는 소인에게 중책을 맡겨져서 송구스럽다”며 “종단 인прав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종회 의원들의 현명한 지혜를 모아 종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종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임기를 마친 전반기 종회의장 자승 스님은 “다양한 사회 문제에 성명과 결의문을 내 대응하는 한편, 1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는 등 전반기 종회가 활발했다”고 자평하고 “후반기 종회는 전반기를 능가하는 활동을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종회는 이어 후반기 수석 부의장에 지준 스님, 차석 부의장에 해일 스님을 임명 동의했다. 지난 11월 3일 치러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토진·해림 스님은 의원점명에 앞서 의원선서를 했다.

이날 오후에는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상임분과위원회가 다소 논란 끝에 구성됐다. 특히, 재정분과위원회 장항적 스님에 대해 종광, 해림, 영배 스님 등이 “과감기판인 직영사찰(선분사) 주지가 감사주제인 재정분

과위원장을 맡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며 이의를 제기해 2시간 지 정회한 후 속개해 격론 끝에 원안대로 통과했다. 각 상임분과위원장은 ▲총무분과위: 무자 ▲교육분과위: 정목 ▲포교분과위: 지원 ▲사회분과위: 무애 ▲재정분과위: 항적 ▲호법분과위: 법광 ▲법제분과위: 성호 스님이 선출됐다.

상임분과위원장을 선출한 중앙종회는 이날 중앙종무기 관 종정감사를 위해 휴회했다. 11월 10일 오전 10시에 속개되는 중앙종회는 내년 10월 10일, 중앙종무기 관의 종무 보고, 의원들이 발의한 종헌종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11월 6일 조계종 제14대 중앙종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보선 스님(왼쪽)과 전임 의장 자승 스님. 사진=박재원 기자

# “올공은 중단되도록 정책모임 긍정 역할해야”

## 후반기 종회의장 보선 스님 밝혀

“여러 의원스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국민과 종도들이 믿고 따르는 올공은 중단.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마을 편안히 쉬 수 있는 귀의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종 제14대 중앙종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보선 스님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 종단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역할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사회가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법률을 제

때 제정해서 종무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종회의 역할”이라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중앙종회 정책모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보선 스님은 긍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스님은 “정책모임은 친목단체 수준이지만 이렇게 서로 합치다 보면 나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라며 “마음은 소통돼야 의사가 합쳐지고 새로운 생각이 창출되기 때문에 정책모임

의 부정적인 측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내년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 “원장(지관)스님이 열심히 종단을 위해서 안팎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지금 선거를 이야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보선 스님은 1966년 천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호법부장, 대흥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13대 중앙종회 부의장을 지낸 3선(11, 13, 14대) 의원이다. 현재 대흥사 회주 소임을 맡고 있다.

김성우 기자

# 환경문제로 사찰 수행환경 위기

## 부산·경기 사찰 환경문제로 몸살

부산·경기 광주지역 사찰들이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10월 4일 성명서를 통해 부산진구 청 팔금산 도로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불교환경연대는 “부산진구청이 추진하는 팔금산 도로는 자연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광명사(부산시 전통사찰 지정3호) 대웅전에서 13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등 사찰 수행환경도 파괴한다”며 “부산 광명사는 백두대간 정기가 응결되고 영남지방 전체의 하천이 모여 흐르는 산신수회처(山神水廻處)의 영국(靈局)을 이룬 전통사찰로 불자를 무시한 도로계획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이어 “작년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광명사와 지역주민, 부산의 환경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 했으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강행추진하고 있다”

며 “11월 5일 부산진구청 앞에서 대척원 차원의 광명사 수행환경수호 기도법회”를 열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 수도사(주지 청호)도 76만5천kw 송전탑 건설로 수행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청호 스님은 “송전탑 공사가 완료되면 초고압선이 사찰과 10m 사이를 두고 지나게 된다”며 “이는 소음 공해 등 수행환경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공사는 개발 논리로 국민생존권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6·70년 대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조계종 사회부는 안전과 동부건설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수도사도 지역 주민 서명운동을 펼쳐 현재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수도사는 앞으로 불교환경연대, 도천면 생존권보장위원회 등과 연계해 송전탑 공사에 대응할 계획이다. 노덕현·김진성 기자

# 개운사 비대위, 고려대

## 기숙사 공사현장 점거

고려대 기숙사 신축공사로 인한 개운사(주지 법해)측과 고려대(총장 이기수)의 갈등이 개운사 측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개운사비대위는 11월 3일 고려대 기숙사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무기한 정전에 돌입했다.

개운사 측과 고려대는 28일 법해 스님, 원경 스님(중앙승가대 총동맹회 사무처장), 종호 스님(개운사 선원장), 고려대 시설부장, 기숙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이 참석해 종고와 건물 간격, 진동 측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가시적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후 시공사가 11월 3일 앞판파쇄작업을 재개해 공사현장 점거로 이어졌다.

법해 스님은 “공사저지 범위 이후 스님들과 종단 관계자들이 대화 창구를 열었으나 고려대와 현대산업개발의 무성의로 더 이상 협의가 무의미해 졌다. 합의사항이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동섭·이나라 기자

# 법륜스님, 美 대통령 당선자 오바마 측근과 면담키로



법륜 스님

북한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이사장인 법륜(사진) 스님이 11월 11일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 캠프에서 한반도 정책을 담당했던 프랭크 자누지 상임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을 면담한다. 외교 소식통은 6일 “오바마 당선인은 대선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이기 때문에 미 대선 이후 그의 한반도 정책 담당자를 면담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의 보좌관 출신인 자누지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현재 북핵 6자회담 미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안 태평양 차관보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좋은벗들 관계자는 “법륜 스님은 좋은벗들을 통해 탈북자 지원과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일을 하면서

자누지 위원을 알게 됐고, 북한 점근방식에 대한 생각이 맞아 수년간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이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들지 않고 청소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이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격 : ₩ 275,000

www.mamirobot.co.kr

Mamirobot (주)경민메카트로닉스 NAVER 지식iN 마이로봇

**지상낙원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하와이 무량사 템플 스테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국 하와이에는 사계절 언제나 파란하늘과 흰구름,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해변  
쉽 없이 붉은 용암이 흘러나오는 활화산, 그리고 무량사가 있습니다.  
하와이 무량사에는 태평선원, 하와이 싯타르타대학  
팔로로 한인양로원, 문화원이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무량사 태평선원 신도선방 방부

하와이 무량사 태평선원은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유일의 해외에서 운영하는 선방입니다. 140여명의 조계종 수좌 스님들께서 쾌적한 환경과 날씨 속에서 1998년부터 정진하여온 태평선원에서는 2008년 동안거부터 20여명의 일반 신도님들의 방부도 받습니다. 문의처에 연락하시면 방부신청서 및 정진시간표등을 보내드립니다.  
• 비용 : 220만원(항공료+3개월 입방비)

### 하와이 무량사 템플스테이

- 인원 : 12명~15명(남·여)
- 기간 : 8박 9일(매주 수요일 출발하여 다음주 목요일 서울 도착)
- 비용 : 170만원 (항공료+템플스테이 참가비+기타여행비)
- 기본 투어(시내관광과 와이키키 해변, 폴리네시아 민속촌등)는 헤드리고 비행기나 배를 타고 이웃섬으로 여행을 원할 경우 자비부담이며, 옵션 여행을 소개해드립니다.
-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신청서 및 일정표등을 보내드립니다.

### 하와이 무량사 출가 영지모집

대한불교 조계종 승니법에 의거 미국하와이에서 출가 승려가 되기 위해 결격사유가 없는 50세 이하의 남자



### 하와이 자원봉사자 모집

- 활동내역 : 포교, 사무 및 후원일, 사원관리, 운전 교육(한글, 다도, 사군자, 찬불가등)
- 필요시 종교비자 제공
- 조식 참석, 기도 참석
- 항공료는 자비부담
- 템플스테이 참가후 자원봉사 활동 환영